

## 빌헬무스 아 브라켈 (1)

### (Wilhelmus à Brakel, 1635-1711)



빌름 판 엇 스페이커르

번역: 이신열(고신대학교 교수, 조직신학)

이 글은 화란 아플도른 신학대학의 교회사 명예교사인 Willem van't Spijker(1926- ) 박사의 *De verzegling met de Heilige Geest*(Kampen: De Groot Goudriaan, 1991)라는 단행본의 번역(p109~121)으로 지난 갱신과 부흥 12호와 연결된다.

판 엇 스페이커르 교수는 1970년 화란자유대학교에서 '마틴 부씨의 직분론'(De ambten bij Martin Bucer)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는데 이 졸업 논문은 학문적 탁월성을 인정받아 최우수 성적(magna cum laude)을 받았다. 그는 유트레흐트(Utrecht) 지역의 화란기독교개혁교회(Christelijk Gereformeerde Kerken, CGK)에서 다년간 목회 후 1972년부터 교단 신학대학인 아플도른 신학대학(Theologische Universiteit van CGK in Apeldoorn)의 교회사 교수로 25년 간 봉직한 후 1997년에 은퇴하였다. 칼빈과 부씨를 중심으로 종교개혁 연구에 평생을 바쳤으며 많은 저서들을 남겼다.

브라켈의 가장 중요한 저작은 그가 『기독교인의 합리적 봉사(Redelijke Godsdienst)』라는 제목으로 출판했던 널리 알려진 교의학이다.<sup>1)</sup> 이 저서에서 그는 사교의 영역에 있어서 신앙의 책임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러나

그가 단지 진리에 대한 설명에만 관심을 기울인 것은 아니다. 감각과 행위의 영역에 있어서 신앙의 가르침에 대한 적용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설명한다.

우리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브라켈은 이 저작과 더불어 개혁적 신앙을 지닌 다수의 세대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했다. 교회에서 신앙이 그 힘을 상실했던 시기에 많은 단순한 자들이 그의 교의학을 학습함으로써 개혁적 신앙고백을 유지할 수 있었다. 실제로 그의 저작은 부성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다. 이 저작은 신뢰받으며 또한 신뢰를 불러일으키는 힘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아버지’ 브라켈은 유명한 신비주의적 설교자이며 『영적 삶의 단계(Trappen van het geestelijke leven)』를 저술했고 이런 방식으로 개혁주의적 백성들에게 지도력을 발휘하기를 원했던 그의 아버지 브라켈(Brakel, Sr.)을 가리키지는 않는다.

그는 성령의 인치심에 대하여 한 장을 따로 설정하는데, 구원의 순서의 일부에 해당하는 이 주제를 특별히 성례의 의미와 관련짓는다. 이렇게 함으로서 브라켈은 성례를 은혜언약의 표징이자 인침으로 간주했던 개혁주의 전통에 머무른다. 세례론과 성찬론은 성령의 인치심의 사역을 그의 독특한 사역으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것이 브라켈이 신자들을 향한 은혜의 사역으로서의 성령의 인치심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음을 뜻하지는 않는다. 그는 성례를 통한 인치심과 차별화되는 차원에서 이를 내적 인치심으로 묘사한다.<sup>2)</sup> 그의 주장이 인간은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성령은 영을 조명하고 믿을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1) (역주), 이 책의 영어 번역본은 다음과 같다. Wilhelmus à Brakel, *Christian's reasonable serv-ice :in which divine truths concerning the Covenant of Grace are expounded, defended against opposing parties, and their practice advocated, as well as the administration of this Covenant in the Old and New Testaments*, 4 vols., trans. Bartel Elshout, ed. Joel R. Beeke(Grand Rapids: Reformation Heritage Books, 1992), 109-21  
2) W. à Brakel, *Logikè Latreia, dat is Redelijke Godsdienst*, deel I, 1730, 940.

그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성례는 영에 간접적으로, 즉 외적인 도구를 통해서 역사한다.

브라컬이 내적 인치심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그는 하나님의 의도를 새롭게 제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주님께서 단지 그의 자비의 은사만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그는 또한 신자들이 이를 보고 깨달기를 원하신다. 여기에 자명한 이원화된 자료가 주어진다. 거기에 삶이 있으며 삶에 대한 의식과 깨달음이 주어진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사가 있으며 또한 이 선물에 대한 지식과 확신이 있다. 하나님의 의도는 신자들이 그들을 향한 호의에 대한 확신 속에서 사는 것이다. 이런 목적을 갖고 성경은 신자들의 표지와 자격을 제시한다. 하나님의 약속과 이 약속을 반복하는 것은 동일한 목적을 위한 것이다. 이 모든 것 위에 그의 서약과 인이 주어진다. 모든 기적을 초월하는 가장 위대한 기적은 성령 자신께서 이 인장이며 그가 신자들을 영원한 기업으로 인치신다는 사실이다.

브라컬이 제공하는 인치심에 대한 정의에는 우리가 이미 종교개혁자들에 대해 살펴보았던 요소들이 등장한다. 장키우스는 마음속에 새겨지는 인장에 관해서 고찰했다. 브라컬은 동일한 이미지를 다룬다: 인치심은 인장이나 도장을 새기는 것처럼 뱃지나 마크를 붙이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에 나타난 의도는 네 가지로 고찰될 수 있다: 1. 소유를 식별하는 인장을 주는 것; 2. 어떤 것을 다른 것으로 감추는 것; 3. 사물을 손상시키지 않고 보관하는 것; 4. 어떤 특정한 사물에 대한 소유권을 확증하는 것. 신자들에게 이를 적용하면, 성령 자신이 다음 방식으로 신자들로 하여금 구원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가리킨다. 자기 자신이 인장이며 그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새기신다. 이를 통해서 신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식된다. 하나님은 이들을 자신의 소유로 아신다. 회심하지 않은 자들은 중생한 자들을 이 인을 통해서 인식하게 된다. 그들은 중생한 자들에게 자신들과는 다른 영, 다른 삶이 있음을 보게 된다. 또한 신자들은 이 인치심을 통해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상속자와 자

너로 깨닫게 된다.

브라컬은 인치심을 성경에 나타난 용어인 계시로 유추하여 숨김으로 간주한다: “이 인을 통해서 신자들은 세상의 눈에 숨겨진다. 세상은 그들에게서 다른 영과 다른 삶을 보지만, 세상은 이들의 영광과 지복을 알지 못한다.” 여기에서 한 걸을 더 나아가서 브라컬은 인치심을 심판을 통과한 보존의 표지로 제시한다.

브라컬에게 성령의 인치심은 특별히 신자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에 도달하는 과정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그는 이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들이 은혜 언약과 모든 약속에 참여함에 대한 확신을 누리게 된다. 고린도전서 2:12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라고 말한다. 성령은 그들에게 제시된 은혜의 은사를 허락해 주신다. 그는 성경에서 영생을 믿는 자들에게 그러한 자리로 제공한다. 그는 그들로 하여금 이 자리를 분명히 깨닫도록 만들며, 이 자리와 자신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그들의 은혜의 상태에 관한 결론을 내리도록 만든다. 그리고 성령은 그들의 마음에 중재되지 않은 사역을 행하신다. 그들 자신의 영이 그들 자신에 대하여 판단하고 증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는 자신을 증거하신다. 그는 그들의 자신에 대한 판단이 옳고 그들의 판단에 대한 증거에 있어서 그들에게 빛을 제공하신다. 그러므로 그는 그들이 약속에 참여하게 된다는 확신을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시는데 이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니”라는 로마서 8:16이 밝히 드러낸다.”

여기에서 몇몇 중요한 요소들이 주목을 집중시킨다. 인치심은 신자들이 실제로 은혜언약과 이 언약의 모든 약속에 참여하게 된다는 확신을 위해서 사용된다. 브라컬이 특별히 내적 인치심을 영혼에 대한 말씀의 작용으로 이해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그가 성령

의 사역을 분석하고 신자의 마음의 작용으로부터 이를 구분한다는 점이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가 우리 안에 허락하신 은혜의 은사들을 보게 하신다. 그 이후에 그는 참된 신자들(그에게 속한 자들)의 묘사가 주어진 성경의 장소와 본문을 다룬다. 이제 신앙의 행위가 발생한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작용에 대한 빛은 우리 앞에 비춰지는 말씀에 대한 빛과 함께 주어진다. 그리고 거기에서 신앙적 논리가 발생한다. 마음과 말씀의 일치에서 결론이 도출된다. 거룩한 판단의 행위가 존재하게 된다: 조명된 지성은 성령이 마음속에서 사역하시는 것과 그가 말씀으로 기록하신 것 사이의 조화를 발견한다. 가시적 일치는 성령의 조명 아래 지성의 행위를 통해 확인된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 그리고 이것 후에, 마치 신앙적 지성이 이미 결론의 방식으로 확실하게 한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이 동일한 증거를 제공하시는 마음속에서 '즉각적' 사역이 발생한다. 그는 이 신앙의 판단이 옳다고 증거하신다. '조명'과 '격려'는 브라컬이 사용하는 용어들이다. 이 두 가지 활동은 성령께서 즉각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적 판단이 올바른 근거에 놓여 있음을 입증하는 인치심의 사역에 있어서 서로 결합된다.

브라컬이 '신자의 행위와 성령의 행위를 어떻게 관련시키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중요하다. 결론처럼 그리고 말씀에 의해서 성립되는 인간 자신의 증거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그리고 이것 후에, 마음에 직접 작용하는 성령의 증거가 있는데 이를 통해서 인간 자신의 판단이 확증된다. 이것이 확신의 과정에서 들려지는 신비주의자의 목소리인가? 모든 신자들은 이러한 성령의 내적 사역을 이미 스스로가 확인했던(또한 성령의 조명으로 발생하는) 결론으로 입증하는 것인가? 이를 경험하지 못한 신자들도 있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런 방식으로 이 증거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브라컬은 신앙의 확실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브라컬은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서 신앙의 본질을 둘러싼 질문을 깊이 있

게 고찰해 나간다. 성경 원어인 헬라어와 히브리어의 도움을 받아 용어를 해설한 후에, 그는 대학에서 행해지는 것처럼 신학의 스타일을 사용하여 이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이는 그가 개혁주의 스콜라주의가 그에게 제공했던 다음과 패턴을 유지했음을 보여준다: 신앙이 존재하며, 어떻게 존재하며, 누가 믿으며, 사람이 무엇을 믿으며,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며, 그것의 기원과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의 속성이 무엇이며, 어떤 결과가 도출되며, 무엇과 유사하며 또한 무엇과 다른가, 그리고 정확하게 신앙의 반대가 무엇인가를 고찰한다. 최종적으로 브라컬은 신앙에 대한 그의 정의를 다룬다(p. 766).

스콜라적 패턴을 다루는 이 방식은 오늘날 우리에게 대부분의 경우 이상하고 과장된 것으로 다가오지만,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보증된 것은 주제를 완전하게 다루는 것이다. 더욱이 브라컬 자신도 자유롭고, 목회적이며 매력적인 방식으로 이 패턴을 다룬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의 의도는 분명해진다. 그는 그리스도에게 연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끌어당긴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의 의도는 전적으로 개혁주의적이다. 그러나 복음의 약속의 자리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루터와 칼빈의 언어로 주어진 것과는 다른 것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이 제기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의 방식으로 다루신다.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것, 즉 약속에 있어서 신앙의 방식을 제외한 다른 방법으로 살 수 없다. 이 사실이 브라컬의 설명에 분명하게 그리고 충분히 나타나고 있는가?

여기에서 우리는 신앙의 정의를 재론하는 것으로 주제를 제한하고 거기에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전반적 내용을 상세하게 제시한 후에 브라컬은 다음의 정의를 제공한다:

“신앙은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의 신뢰이며, 그를 통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성화되고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가 이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행하실 것이라는 그의 자발적 헌신과 약속에 기대어 그를 받아들이고 그에게 자신을 맡기는 것이다.”

이 서술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에 나타난 서술과 비교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말씀으로 계시하신 모든 것을 지킴으로서 획득하게 되는 확실한 앎으로서의 지식의 위치와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요리문답서는 신앙이 단지 확실한 앎일 뿐 아니라, 견고한 신뢰라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서 요리문답서는 약속에 기초하고 지성에 계시되고 마음에 인쳐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확실하고 견고한 지식이라고 밝히는 칼빈의 정의와 같은 선상에 놓인다. 여기에는 지식과 신뢰라는 두 가지 요소가 함께 등장한다. 지식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으로 이끌고 난 후에 그에 대한 신뢰로 이어진다.

브라quel은 신앙에 있어서 지식과 신뢰의 상호관계를 어떻게 파악하는가? 신앙에 관한 것은 손에 달려 있다. 합리적 지식은 그 자체로서 『기독교인의 합리적 봉사』의 저자에게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신앙을 위해서 합리적인 것은 필연적인 것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믿음을 지닌 영혼에게는 영혼의 모든 능력이 동원되므로 합리적인 것은 홀로가 아니다: “이런 방식으로 믿음을 지닌 영혼은 지식에 열중하며, 이를 원하며 욕망한다. 사람이 믿을 때, 그의 모든 능력이 그 속에서 활동한다”(p. 770). 따라서 지식과 신앙은 서로에게 속한다. 그러나 지식은 동의하는 신뢰에 선행한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지만, 말씀 곁에 머물러 있지는 아니하며, 말씀에 의해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며,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 간다.

신앙의 고유한 행위는 신적이며 복음적인 진리와 약속에 이처럼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성화되어 지복에 이르도록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이다. 브라quel은 신앙의 좌소가 지성이 아니라 의지에 놓여 있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인정하듯이 신뢰는 먼저 사람이 복음적 진리를 알고 이에 동의할 것을 요구한다. 신앙은 복음과 더불어, 그리고 이를 통해서 단지 이 지식 이전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작용한다. 그러나 영생의 복

을 가져다주는 신앙은 복음의 약속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발적 헌신과 그를 믿는 자들에게 행해지는 약속에 기초하여 그를 통해서 영생에 이르도록 마음으로 그를 신뢰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시에 우리는 신앙의 좌소가 지식이 아니라, 의지에 놓여 있다고 말한다.”(p. 777).

여기에서 브라컬이 어떤 의미에서 자신에 대해서 모순된 주장을 전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는 실제로 먼저 신앙은 영혼의 모든 능력이 동원되는 행위라고 설명한다. 이제 그는 신앙의 고유한 행위를 의지에만 국한시킨다. 그가 역사적 신앙과 영생의 복을 가져다주는 신앙 사이에 존재하는 특정한 차이를 분명하게 밝혀야 할 때, 이런 방식으로 그는 다소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회심하지 않은 자의 지식과 회심한 자의 그것은 서로 다른 본질에 관한 것(그 준비에 있어서가 아니라)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여전히 동일하며 또한 동일한 것으로 남는다. 양자는 모두 역사적 지식에 관계하며, 그리고 진리에 동의할 때, 하나의 지식은 다른 지식과 마찬가지로 역사적 신앙에 해당된다.”

브라컬은 역사적 신앙과 영생의 복을 가져다주는 신앙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명확하게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회심하지 않은 자의 지식과 회심한 자의 그것은 서로 다른 본질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를 분명하게 지적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신앙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중간점, 본질, 그리스도와의 신뢰관계 속에서 완전함을 획득하게 된다.

아무런 의심 없이 브라컬은 그것에 의해서 성경이 신앙에 관해서 말하는 것과 종교개혁의 메시지의 핵심에 이르게 된다: 단지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의해서만 우리는 실제로 생명을 받게 된다.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이는 그와의 교제를 의미한다.

종교개혁 이후에 나타난 주목할 만한 발전은 죄인이 그리스도와의 교제



에 놓이게 될 때 그에게서 발생하는 구원과정의 묘사적 성격에 놓여 있다: 구원은 자신이 죄를 깨달은 죄인에게 임한다. 그러나 브라컬은 구원의 진보에 대해서 더욱 구체화되고 연대기적으로 정돈된 묘사를 제공한다: 인간이 믿기 전에, 우리의 부족함과 수치심을 깨닫게 하는 말씀의 선포가 먼저 이루어진다(p. 783). 일부는 일반적이지만 또한 특별한 헌신에 의해서 죄인들이 지식을 획득하게 되는 수치심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내몰도록 만든다. 그는 모두에게 제공된다. 어떤 사람도 그로부터 배제되지 아니한다. 이제 그리스도를 향한 굶주림과 목마름이 발생하며 죄인은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되며, 그에게로 피하며, 그 후에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게 된다.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신뢰가 주어지는데 이는 확신에 해당된다. “행동하고, 기도하며, 투쟁하는 신앙을 지닌 채, 그는 자신의 마지막 말을 만들고 신앙의 행위에 대해서 성찰한다. 이를 통해서 영혼은 스스로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의 충만함과 약속, 그리고 이 약속의 확실성에 대해 인식한다.” 이런 방식으로 그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리스도는 나의 것이며 나는 그의 것이다. 성령은 그분 위에 때로 아주 강력하게 인을 치신다. 여기에 ... 신앙의 열매로서 ... 침묵, 평화와 기쁨 등이 뒤따른다”(p. 785).

심리학적 과정에 대한 구원순서적 설명이 유일하시고 강력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전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가에 관한 질문이 제기될 수 있지만, 이는 구원을 위한 충만하고 만족할 만한 근거에 해당된다. 브라컬에 의하면 죄인은 기도하고 투쟁하면서 마지막 말을 준비한다. 성령이 고집하신다면, 때로는 죄인에게 강력하게 그의 인을 새기실 수 있다.

신앙에 대한 브라컬의 견해는 성령의 인치심에 대한 그의 설명과 동일한 동기를 유발시킨다. 신앙을 지닌 인간은 자신의 신앙적 지식과 함께 자신을 말씀에 테스트하는 일에 열중한다. 이를 통해서 그는 자신을 인식할 수

있다. 그리고 그의 영혼 또한 동일하게 아멘으로 응답한다. 때로는 이 사실에 대해서 성령도 자신의 아멘을 외치신다. 그렇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확실한 것이다.

순수하게 종교개혁적이며, 순수하고 성경적인 참고는 그리스도와 그의 약속 사이에 일관성에서 발견된다. 칼빈은 '성경의 의복을 입으신 그리스도'와 '자신의 약속을 입으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했다. 이 점에 있어서 브라컬이 전적으로 옳았다: 인간은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는 약속을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이를 바꾸어 말하면: 인간이 약속의 요점을 신뢰할만한 복음적 진리로 간주하지 아니하면, 인간은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질문이 떠오른다: 브라컬에게 표지가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가? 약속에 따른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이 나중에 더욱 자세히 논의되어야 할 우리 앞에 놓인 질문들이다.

브라컬은 신앙의 표지에 대한 묘사에 상세하게 몰입한다. 신앙에서 실족하는 자는 기독교와 관계되는 모든 것에서도 실족한다. 참된 신앙과 일시적 신앙 사이에는 '전체 본질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하며, 따라서 자기 검증이 필요하다. 자기 검증에 있어서 표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에서 비롯되는 도움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있는 자신의 상태에 대한 지식을 지닐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여기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된 동맹자들은 많은 어두움을 지배한다. 따라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브라컬은 앞서 복음과 관계를 맺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묘사한다. 그는 땅보다 더 높지 않은 사고를 지닌 무지한 자들을 개괄한 후에, 그들이 회심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지만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 자들을 다룬다. 이들 가운데는 방해받기를 원하지 않는 자들도 있다. "이들은 강단에서 비롯되는 목사의 농담 또는 특별한 발견에 관해서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

또한 이들 가운데는 연약한 심성을 지닌 자들, “선량하고 기질적으로 부드러운” 자들도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참된 심각성이 결여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외적 종교가 유지되지만, 그들의 상태에 관한 결론을 수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아주 많다. “다른 경건한 자들 곁에서 그들은 그들의 영적 가난함에 대해서 많이 불평하고, 그들이 중생하지 않았다는 심각한 두려움에 대해서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방식으로 경건한 자들의 존중의 모양새, 사랑, 그리고 동정을 원한다.” 잘못된 근거에 기초하여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상상하는 자들이 있다. 올바른 근거를 지니고 있지만 이를 잘못된 방식으로, 즉 마음의 깊이에 파고들지 않은 채 피상적으로 적용하는 자들도 있다. 브라컬은 이런 방식으로는 표지가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상태를 확정함에 있어서 결코 어떤 실질적 의미를 지닐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자신을 탐구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을 둘러싸는 진리를 연모한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스스로를 검증하기에 주저하지 아니한다. 그들은 기꺼이 자신들의 실수와 부족함을 발견해낸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알아보게 되면, 이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즐거워하게 된다. 그들의 신앙은 이를 통해서 강화되고 그들은 진심어린 사랑으로 앞으로 주님을 위해 봉사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느낀다.

브라컬은 표지를 신앙의 ‘토대’로 언급하는데 이는 부적절하게 언급된 것이다. 그가 제공하는 저작물에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리고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이 고유의 토대를 지닌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이 토대는 신앙의 고유한 토대가 아니라 신앙이 참된 신앙이라는 점을 확고하게 하는 토대에 해당된다.

그는 비참함, 구속, 감사라는 하이델베르크요리문답서의 세 가지 주제와 관련해서 죄에 대한 슬픔, 신앙, 그리고 성화를 연속적으로 언급한다.

첫째 표지에 관해서 브라컬은 일시적 신앙을 지닌 자들이 그들의 부족함

을 발견하도록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저작활동에 임한다. 이런 일시적 신앙을 지닌 자들은 어떻게 사고하는가? 그는 성경이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한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이 사고한다: “나는 애통한다. 내가 죄를 범할 때, 나는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쁘다. 나는 엄청난 싸움에 임했고 공포감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내가 은혜언약 안에 있음을 믿고, 또한 내가 신자임을 믿는다.”

브라컬은 이런 방식으로 사고하기를 거부한다. 모든 애통이 빛과 생명의 표지는 아니다. 사울, 아합, 유다의 예들은 많은 애통, 많은 눈물이 있었지만 그들의 상태가 올바르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이는 애통에 있어서 특히 애통의 원인, 방식, 그리고 영혼의 상태로 귀결된다. 참된 애통과 예를 들면 우울한 성격에서 비롯되는 애통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하는데 후자는 심판에 대한 순수한 공포감에서 비롯되거나, 또는 포착한 행위로 인한 부끄러움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이에 달리 참된 애통은 죄를 죄로 인식함에 관한 것이다. 이는 단지 외적인 죄뿐 아니라 특히 내적인 죄에 관한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없는 것과 연관되며 애통을 더욱 심화시키며 애통을 영적인 문제로 만드는 것인데 이는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시도하고 그의 면전에서 멀어져 퇴보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는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과 연관되며 노예적 두려움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 애통은 영생을 향한 양심의 가책 없는 회심을 이끌어 낸다. “그들이 당장 죄를 극복하도록 만드는 것도 아니며, 다시금 동일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애통을 통해서 죄를 점점 더 싫어하게 되는 것을 배운다. 그들은 하나님의 실존 앞에서 죄에 대항하는 신실한 의도를 복돋운다. 그들은 반복적으로 죄에 대항하는 투쟁에 임하며 더욱 성화된 영혼의 모습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관찰을 근거로 해서 신자는 자신의 영적 상황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이는 다음의 인용문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두 가지 측면에서 유효하다: “만약 이 사실이 당신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면, 당신의 애통이 올바르지 않다는 사실을 숙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사람이 중생의 두려움에 처하게 되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전이의 표지로 간주하지 말고, 당신이 여전히 자연상태에 놓여 있음을 숙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당신에게 실제로 적용된다면, 당신이 은혜를 부인하거나 이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나 이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사실에 대한 표식으로 간주하라. 또한 당신은 아직 이렇게 서술된 사실들을 이전에 지녔던 만큼, 또는 다른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만큼, 또는 당신이 원하는 만큼, 지니고 있지 않다. 참된 애통이 있는 곳에, 다른 두 가지 표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둘째 표지는 신앙의 표지이다. 브라컬은 여기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한다: 먼저 그는 단지 역사적 신앙 또는 일시적 신앙을 지닌 자들의 이미지를 서술한다. 그들은 부분적으로 진리에 대한 관조적 지식을 지니거나, 또는 이에 대한 아주 피상적이며 외적인 견해를 지닌다. 이들은 명량하지만 그들의 삶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에 대해 거의 어려움을 느끼지 아니한다. 그들은 약속을 바라보지만, 약속이 주어진 자들에게 이 약속의 역할을 알지 못한다. 인간은 비록 양심이 진리를 말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인간으로 하여금 침묵하게 하고 인간이 이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한다.

이와 달리 참된 신자는 진정으로 주 예수를 받아들이며, 자주 이를 행한다. 그들은 단지 예수님이 제공하시는 재화뿐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필요로 한다. 그들은 그들의 직분에 있어서도 아무런 조건 없이 그를 받아들인다. 그들은 그와의 교제에 힘쓰기를 원한다. 그들의 신앙의 실제적 모습은 간절히 원하고 찾고 발견하는 것이다. 그들의 신앙은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는다.

또한 셋째 표지와 관련해서 브라컬은 동일한 방식을 따른다. 이는 참된

거룩함이라는 신앙의 열매로 구성된다. 그리스도를 칭의함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에서 이 거룩함이 도출된다. 이 신앙은 화해의 능력을 알고 있으며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힘쓴다. 참된 거룩함은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이는 그를 향한 사랑에서 주어지며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에 해당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여기에서 제기될 수 있는 질문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이러한 실재들 가운데서 신앙의 표지와 더불어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사람이 이런 방식으로 자신에게 향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여기에서 신자가 그리스도 대신에 중심에 서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언제 표지에 관한 이러한 견해가 설교를 지배하게 되는가? 그렇다면 신앙과 회심을 향한 호소에 있어서 남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설교가 쉽게 서술로 전이되어 사람들이 그들의 상태에 안주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약속에 대한 신앙인가? 또는 표지에 대한 신앙인가? 우리가 이 마지막 질문을 브라컬에게 던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의 결론을 살펴볼 때 표지의 영역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신앙이 확신에 도달하게 되는가? (계속)